



THE TIME HAS COME

이제 때가 왔습니다

2015. 10. 6-11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티켓 가격은 순차적으로 인상되오니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2015presidentcup.com

f '2015 프레지던츠컵' 검색 후 친구 추가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7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07



모두 힘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인천광역시

내 고향의 황혼 _ 1935년

함세덕



황혼이외다.

팔미도 멀리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검은 섬 위에

배부른 범포(帆布) 비치며 노을 뿜은 석양이 걸렸습니

다. 항구의 불빛 멀~게 떨어져 부두의 등대가 어렴풋이 조을 때

기슭에 나룻배가 초저녁 반짝이는 샛별 아래

고요히 안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처녀림에 둘러싸여 정적 에워 호수 같은

맑은 당신의 눈동자 속에 이몸 잠재우고 싶었으나

당신은 봉사이더이다.

나만을 못 보시는 원망스러우신 장님이었습니다.

황혼이외다.

웃터글 나무썩 깃 속에 어린 새의 꿈이 피고

모연(暮煙) 자~욱한 월미도 주름길은

낙엽 쫓는 초동(樵童)의 쪽지게가 외로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이면

동백꽃 따들고 달빛 긴 강물에 목욕하러가는

먼 섬 시냇씨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행여 한가람 미풍을 타고

당신의 주옥같은 맑은 귀를 시칠까 하야

조심스러이 목소리 가다듬어 불려보았습니다.

마는 당신의 맑은 귀는 귀먹었습니다.

꼭 내 소리만 못 들으시는 원한스럽게도 귀먹었습니다.

황혼이외다.

바람은 언덕에 미끄러져 골짜기에 잠겼습니

다. 섬은 노을을 먹고 어둠은 황혼을 삼켰습니

다. 오실 리 없는 길~게 뻗은 부두를 멀~건히 바라보며

기약 없는 심사가 기다림에 지쳐 눈감았습니

다. 황혼에 피어난 동경(憧憬)의 무지개 꿈속에

당신을 찾으려다가 내 자신을 잃고

무거운 걸음새로 돌아서 왔습니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인천 섬 풍경 그리고 발걸음	06
테마 여행 가이드	16
민선6기 1년 특집 도약한 일 년	18
더 눈부실 내일	24
시장, 시민과 한 테이블에 앉아	26
포커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32
찾이슈 인천신항 개항	34
까치발로 본 인천 ⑦ 송월동 → 인천항	40
내 길 내 일 인천서예대전 대상 이해원	44
CULTURE INFO	46
NEWS BRIEF	48
COUNCIL NEWS	51
INFO BOX	54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57
모닝 커피 한잔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원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7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 (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07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9



06



18



34

COVER STORY

모두 힘들었습니다. 봄에서 여름 사이의 경계, 먼 나라에서 느닷없이 몰아닥친 바이러스의 공포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우리 마음도 자꾸만 움츠려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바다, 그 넓고 깊은 품에서 심호흡 깊게 하고, 내일도 힘내어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인천시민입니다. 인천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 반갑습니다. 인천시는 ‘시민희망데이트’라고 하여, 매월 1회 시장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희망데이트를 신청하시려면, 인천시청 홈페이지 → 희망인천시장실 → 시민희망데이트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mayor.incheon.go.kr/app/civil

인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메르스로 불안한 요즘 같은 때 소독은 잘 하고 있는지 걱정되네요.

↳ 인천교통공사 관련 부서인 경정비팀(451-3823)에 확인한 결과, 지하철 소독은 월 1회 실시하며, 여
름철인 7~9월은 월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특별점검기간인 6, 7, 8월은 월 2회 실시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6월 8일 오늘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천장애인체육회 소속 휠체어펜싱 선수입니다. 하지만 일반 선수가 아니고 장애인 선수
라서인지, 5년째 아무런 지원이 없네요.

↳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담당인 시 체육진흥과 체육
진흥팀(440-4083)에 확인한 결과, 우수 선수의 등급에 따라 대회실적(포인트)
이 누적되면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장장애인체육
회 전문체육팀(425-99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부동산투자 박람회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진 않았
는지 궁금합니다.

↳ 국제 부동산투자 박람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
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티스케이프 코
리아(02-360-4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인천시미디어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송도 ‘신세계 타운’ 건립 사업, 감정가격 미만
계약체결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오보 내용

○ 신세계 타운은 문화시설, 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당시 양
측은 감정평가 금액 미만인 3.3㎡당 850만원에 토지를 매각한다
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청은 부지를 감정가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타운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시가 경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감
에서 지난 2013년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부지 16만5천㎡를
신세계에 1천억 원에 매각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
이다. 시 감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부지가격을 책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이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각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
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시 감사가 무리한 것이
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명 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1. 10월. 24. (주)신세계와 「교외형 복합쇼핑몰
개발사업」과 「인천 전동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협약 당시
① 실제 개발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② (주)신세계 역시 외투기업이 아닌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각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외국투자 유치라는 이유로 2011년 4월경 탁상가격으로 토지가격(1
천억 원)을 산정 후 (주)신세계와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음.
그 결과 ① 2013. 1. 3. (주)신세계투자개발이라는 외투법인을 설립 후 조성원
가·감정평가 없이 실무자 탁상가로 특혜 매각해 시 재정에 598억 원의 손
실을 끼침.
② 토지매각대금 1천억 원 중 50%는 한물(한옥마을조성 5백억 원) 형식으
로 목적물을 조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토지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것
으로 하는 위법·부당한 조건을 정함. 이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토지매각대금 중 5백억 원이 수입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 사용.
③ 토지매각 대금 1천억 원 중 5백억 원(한물)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행정절
차 이행(타당성조사→투·융자 심사→예산편성→시의회 승인→사업추진) 없
이 위법부당하게 집행.
④ 한옥마을 ‘경원별서’ 구역을 외식·문화공간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고, (주)신
세계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주)가 500억 원의 한옥마을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
로 직접 시공하게 함으로써, 약 100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회계질서 문
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임.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김민정(36·조명디자이너)

〈굿모닝인천〉보며, 인천의 매력 발견

인천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김민정 씨는
인근 도시에서 계양구로 직장을 다니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빛으
로 우리가 사는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조명디자이너입니다. 서울로 직장을 다니다
인천으로 옮긴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시가 낯설게만 느껴졌
지만 인천을 하나둘 알아가면서 어느새 인천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굿모닝인
천〉은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주변만 쳇바퀴 돌
듯 다녔는데, 인천의 명소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책을 보고 송도국제도시 송도센
트럴공원과 카널워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서울 못지않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도시
라고,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인천의 섬으로 친구들과
과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가까이 있으리라고, 책을
보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을 통해 계속 인천의 매력을
알아가고 싶다면, 그녀가 햇살처럼 맑게 웃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쪽빛, 그 이끌림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정작 그곳에 가면 섬은 섬이 아니다. 달는 순간 육지가 되고
바다 건너 다른 섬들이 펼쳐진다. 인천에는 가깝고도 아름다운 섬과 맑고 깊은 바다가 있다.
여름 한가운데, 바로 걸 늘 그리던 쪽빛 바다 그리고 섬으로 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김상덕 자유사진가



바다가 섬을 놓아 주는, 단 여섯 시간

대이작도 풀등 이 작은 모래 섬은 바닷속에 숨어 있다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홀연히 솟아오른다. 바다가 섬을 놓아주는 시간은 하루 단 여섯 시간.
슬그머니 나타났다가 스리슬쩍 사라져, 찾는 이의 마음을 애태운다. 서둘러야 한다. 섬이 바다와 스르르 어우러져 사라지기 전에, 햇살 머금은 금빛 웅
단 위에서 멈춘 듯 시간을 흘려보낸다.



~~~~~ 신이 빛은 마지막 작품

**백령도** 인천에서 뱃길로 224 km, 꼬박 다섯 시간을 내달려 멀고 아득한 서해의 중착역에 다다른다. 질푸른 물결 위로 백령도가 수줍은 듯 자태를 드러낸다. 섬에는 깨질 듯 투명한 자연이 있다.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두무진의 자태는 진저리쳐질 정도로 찬연하다. 하늘도 바다도 온통 파란빛. 그 사이 선대암, 코끼리바위, 물범바위, 창바위가 미(美)의 경연을 벌이고 있다.



~~~~~ 은밀한 대자연의 신비를 엿보다

연평도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섬은, 세상이 제쳐 두고 바다와의 밀어뺏겨 빠져있다. 섬에는 신비로운 공기가 가득하다. 자연은 무수한 시간의 층을 쌓아 거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뽀뽀옹 절벽은 영화 속 주인공이 자유를 향해 바다로 뛰어들던 그 절벽의 모양새다. 그 아래서 내려다보는 가래칠기 해변, 북녘 땅 가까이에 있는 아이스크림바위 등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이 숨을 멎게 한다.



섬에서 마주친 거대한 ‘사막’

대청도 섬에서 거대한 사막을 마주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 대청도 옥죽포 해안의 사구. 대륙으로부터 바람에 실려 날아온 모래가 영겁의 세월 쌓이고 쌓여 거대한 언덕을 이루었다. 파도와 바람, 빗물이 빚어 낸 이 거대한 자연의 작품은, 선연한 연흔(漣痕)을 새기며 섬에 하루하루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쉬 달을 수 없어, 마음을 붙잡다

백야도 섬으로 가는 배는 완행이다. 덕적 바다역에서 배를 갈아타고 섬을 건너고 건너야만, 섬에 다다른다. 백야선 착장에서 고기잡이배를 얻어 탄 건 행운이다. 한편에는 하늘과 하나 된 수평선이, 한편에는 기암절벽의 수려한 풍광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한가로이 별을 즐기던 가마우지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높이 날아가 버린다. 고른 한낮, 하늘 위에선 여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햇빛이 스러지면, 섬은 다시 섬이 된다

교동도 유배의 섬 강화에서 또 유배된 섬, 교동도는 강화 북서쪽 바다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러 있었다. 그 섬에 교동대교가 놓이면서 육지에서 섬, 섬과 섬 사이의 간극이 메워졌다. 하지만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면, 섬은 철조망을 두른 채 저 멀리 물러나 다시 혼자가 된다.



그 섬엔, 또 다른 황해도가 있다

교동도 대룡시장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교동도 대룡시장은 6·25 전쟁 때 황해도에서 온 피란민들이 하나둘 모여 장사를 하면서 형성됐다. 다시 갈 수 있을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무른 시간이 깊어 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져 간다. 그 시간은 지금도 일상이 되어 흐른다. 시계방 할아버지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태엽 감는 시계를 고치고, 마을에서 유일한 이발관에선 여전히 분주함이 새어 나온다.





~~~~~  
코발트블루, 바다에 스며들다

**덕적도** 물이 깊디깊어 ‘큰물’이라 불리는 섬. 이 섬의 8할은 숲이다. 섬 전체를 감싸안은 소나무 숲은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그 섬 서포리 해수욕장을 두고, 사람들은 서쪽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말한다. 곱고 하얀 모래사장 뒤로 짙게 드리워진 녹음. 그 아래서 나른한 여름 오후 긴긴 오수에 빠져도 좋다.



초승달 해변 위, 색색의 작은 배

**시도** 섬은 한때 드라마 촬영지로 세상에 알려졌다. 필름 속 풍경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빛바래 가고 있지만, 해변에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도 남을 풍경이 펼쳐진다.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뻗은 바닷가는 모래 결이 곱고 솔솔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아늑하다. 펜션 ‘풀사이드(Poolside)’ 앞 색색의 카약과 패들보트는 섬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강화, 그 넓고 깊은 품

**강화도** 날카로운 퇴약밭을 피해 수더분한 땅 빛 좇아 강화로 간다. 섬 안에는 무수한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미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았음을 말해주는 고인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적까지. 강화 감축이 들어갈수록 한민족의 가나긴 역사가 흐르고 흐른다. 섬 남쪽 고트머리에는 동막해수욕장이 있다. 이곳은 물 차면 푸른 세상이 열리고 물 빠지면 진회색 용단이 끝없이 펼쳐진다. 강화, 그 넓고 깊은 품에선 이 여름이 더 맑고 깊게 빛난다.





제1회 웅진 세계 전국 사진 공모전 \_ 김영빈 '등대가는 길'

### 최북단 바다, 홀로 핀 등대

**소청도** 서해 북쪽 끝자락에 이르렀다면, 대청도 가는 길 바로 곁에 있는 소청도에 꼭 들러야 한다. 섬 서남쪽 땅 꼬트머리에는 하얀 등대가 고고히 서 있다. 등대는 1908년 1월 1일 처음 불을 켜고, 밤새 파도가 파랗게 달려드는 최북단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달이 지고 해가 뜨고, 등대 위에 서면 멀리 바다 건너 북녘 땅 웅진반도까지 시선이 닿는다.

### CNN 선정,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선재도**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 이름 지어질 만큼 경치가 빼어난 섬. 최근 CNN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가운데 1위로 선정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들려 버렸다. 섬 당너머 해변 앞에는 목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다. 동그란 바가지를 물 위에 붓듯 올려놓은 듯 앙증맞은 모습이다. 물이 빠지면 섬 사람들이 '목때미'라고 부르는 길이 열린다. 그 길 따라 걷는 길, 마음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 햇살보다 긴, 노을의 여운

**석모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러, 강화에서 바다 건너 석모도로 간다. 설차게 쏟아지던 햇살이 수평선 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세상을 붉은 빛으로 물들여 버린다. 백사장은 적(赤)사장이 되었고, 해변을 메운 갯바위는 세상에 없을 작품이 되었다. 그 빛이 어리어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는다.

### 섬으로 가는 길

- 북도면**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10분 정도 소요. 세종해운 884-4155
- 연평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 고려고속 1577-2891
- 대청면 백령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 대청까지 4시간 30분, 백령까지 5시간 소요. 우리고속 887-2891, JH훼리 1644-4410
- 덕적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 고려고속 1577-2891. 굴업도, 문갑도, 백아도, 지도, 울도는 덕적도에서 나래호를 탄다.
- 자월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우리고속 887-2891과 대부해운 887-0602를 타면,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에 갈 수 있다.
- 영종도** 공항철도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인천대교 혹은 공항고속도로를 지나 영종대교를 이용한다.
- 강화도**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면 강화. 석모도·주문도·불음도는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교동도는 교동대교를 건넌다. 삼보해운 932-6007
- ※ 예매 : 한국해운조합 '가보고 싶은 섬' island.haewoon.co.kr 02-6096-2266



## 인천 섬 여행 맞춤 가이드

여름이 파랗게 익어 가면, 마음은 어느덧 길을 찾아 나선다. 인천 앞바다에서 뱃길로 조금만 가면, 서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운 물빛이 펼쳐진다. 그 안에서의 휴식, 낭만 그리고 모험.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김상덕 자유사진가

### Healing 휴식

#### 사승봉도 무인도에서 온전한 휴식

'섬'이라는 단절감은 묘한 끌림을 부른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면 더욱 그렇다. 승봉도에서 어선을 빌려 타고 10분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사승봉도에 이른다. 사도(砂島)라고도 부르는 섬엔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살차게 쏟아지는 햇살 아래, 파도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부서진다. 세상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게으르고 달콤한 시간을 흘려보낸다.

문의 자월면 주민자치센터 899-3750

#### 연평도 평화의 바다에서 사색

365일 긴장감이 흐르는 바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섬의 일상은 차분하고 평화롭다. 망향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 땅을 바로 눈앞인 듯 당겨볼 수 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두 동강인 현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섬은 빼빼옹절벽, 가래칠 기해변, 구리동해변 등, 쉬 닿을 수 없는 거리만큼의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문의 연평면 주민자치센터 899-3450

### Romance 낭만

#### 백령도 오색빛깔 해변 걷기

두무진 바닷가 콩돌해안에는 오색빛깔 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오랜 세월 바다와 바람이 토닥거리고 간 자갈밭은 물결 따라 오묘하게 반짝인다. 그 바닷가에서 방조제를 건너면 사곶해변에 이른다. 이탈리아 나폴리해변과 함께 세계에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으로, 모래사장 위를 드라이브할 수 있다. 또 유람선을 타면 코끼리바위, 형제바위, 신선대, 선대암 등 두무진 일대를 둘러볼 수 있다.

문의 백령면 주민자치센터 899-3510, 두무진 유람선 836-8088

#### 대청도 곱디고운 모래, 맑디맑은 물빛

대청도는 해변 예닐곱 개가 빙 둘러싸고 있다. 특히 농여에서 양지동으로 이어지는 해변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언덕이 펼쳐진다. 섬 남쪽, 모래여울이라는 뜻의 사탄동에는 사탄동 해안사가 있다. 아담하지만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모래 결이 보드랍고 물빛은 맑다. 옥죽포 해안에는 거대한 옥죽포 사구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금빛 물결로 일렁인다.

문의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899-3610

#### 영종·용유도 기차 타고 바다 건너 섬으로

기차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섬으로 간다. 인천공항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에서 바다를 건너 섬으로 가는 열차다. 열차의 종착역인 용유임시역에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거잠포에 닿는다. 또 역 앞에서 버스를 타면 선녀바위, 을왕리, 왕산 해변 등이 단 10분 거리다. 걸어도 그리 멀지 않다.

문의 중구청 760-7114,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1544-7788

### Adventure 모험

#### 신도·시도·모도 카약 타고 뱃놀이

사이좋은 삼형제 섬 신도, 시도, 모도. 시도 수기해변에서는 펜션 '풀사이드(Poolside)'에서 카약과 패들보트를 빌려 타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노를 저으며 한편에 낚싯대를 드리우면 승어가 척척 걸려든다. 또 밤이면 옥상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고, 펜션 앞 캠핑장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보내도 좋다.

문의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899-3410, 펜션 풀사이드 poolside.co.kr 752-2580

#### 덕적도 물고기 그득한 '큰물'

'큰물' 덕적도는 굴업도·문갑도·소야도·울도·백아도 등 낚싯대를 던지면 걸릴 것 같은 작은 섬들을 달고 있다. 이 섬들은 '바다 수족관'이라고 할 만큼 입질이 좋아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름에는 놀래미, 광어, 도다리, 송어, 돌돔, 장어가 척척 잡힌다. 낚싯배는 마을에서 빌려탈 수 있다. 덕적도 서포리 선착장, 밭지름 해변, 능동자갈마당 등도 갯바위 낚시 포인트.

문의 덕적면 주민자치센터 899-3710

#### 무의도 창공 가르며, 바다를 끌어안다

너른 개펄이라고 해서 '하나개'라고 했던가. 과연 그렇다. 물 빠지면 끝없이 펼쳐지는 진회색 웅단. 그 안에서 쏜살 같이 사라지는 방계와 숨바꼭질 하노라면 어떻게 하루해가 지는지 모른다. 순간 외줄을 탄 사람이 창공을 가르며 머리 위로 휩 지나간다. 'Zip-Wire'다. 용기를 내 외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발밑 바다가 줌렌즈를 당기듯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문의 하나개 해수욕장 751-8833, 씨 스카이 월드 www.seasky.kr, 746-6886





## “역대 최대 수준 정부지원금 확보”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정목표로 내세우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향해 달려왔다. 지난 1년 인천은 힘든 시간을 겪고 인내하면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인천은 오늘을 발판삼아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성큼 성큼 나아가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까지 점차 부채규모, 채무비율 감축

인천시는 막대한 부채규모와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국고 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인 2천609억 원을 더 확보했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로 세수를 확충했다. 이 사업들을 통한 징수액은 2천12억 원으로 전국 1위의 규모다. 3% 이상 고금리 지방채 1조5천717억 원도 조기에 갚아 1천194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재정혁신을 단행했다.

인천시 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성적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공무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31억8천만 원을 반납했다. 시는 2018년까지 실질적인 균형 재정 달성에 목표를 두고 세출구조 조정, 세입확대, 투자유치를 통해 부채 13조원을 10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채무비율 37%를 32.8%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 인천중심 교통망 ‘인천발 KTX’

인천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개선하고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발 KTX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발 KTX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전리 부근에서 공사 중인 수인선(수원~인천)과 기존 경부고속철도 사이 2.4km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실행을 위해 지난 3월 25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 11분, 부산까지는 2시간 3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개통이 목표다.

### 섬,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

인천이 가진 160여 개 섬이 인천의 경쟁력이 된다. 백령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백령도 중화동 교회가 있다. 북음의 관문이었던 백령도의 역사성을 살려 백령도 성지순례 상품을 개발한다. 옹진군 시도 저어새, 강화갯벌, 송도갯벌습지, 대이작도 주변해역 등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관광 상품도 마련된다. 물치섬 작약도는 관광호텔, 콘도, 청소년수련장, 요트장 등을 갖춘 해양관광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오는 12월 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는 강화역사문화 둘레길을 만들고, 토기섬 굴업도는 호텔, 요트장, 생태학습장을 갖춘 관광단지로 탈바꿈한다.





### 지역숙원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C~신월C(11.7km)구간을 민간자본으로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고속도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루원시티, 10년 영긴 실타래를 풀다

인천의 '라데팡스로 불리며 첨단도시 건설을 추진했던 루원시티. 당초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사업은 진전이 안돼 10년간 도시는 방치돼 있었다. 꺼져가던 루원시티 사업에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시와 나눈 사업비를 50%씩 공동 부담하되 내가 선 투입하고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 '루원시티 정상화추진 합의서'를 지난 3월 체결했다. 이곳은 서북부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지역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루원시티에는 공공기관, 복합시설 등 핵심 앵커시설이 유치된다.

### 수도권매립지 제한적 사용 연장 합의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 교통 확충을 위해 4자협약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 인천보훈병원 착공 등 시민편의 시설 대거 유치

농산물 도매센터 이전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로 구월농산물 도매센터가 이전한다. 이전장소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이다. 부지면적 17만3천188㎡, 연면적 10만752㎡에 지하1층·지상2층, 7개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지역 병무 불편을 해소할 인천병무지청이 48년만에 개청한다. 병무청은 7월부터 인천시와 부천, 안산, 김포 등 경기도 5개시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인천병무지청을 남구 인천장병검시장에 신설한다. 이로써 경기도 수원까지 가야했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보훈가족들의 숙원이었던 인천보훈병원이 드디어 착공한다. 남구 용현동에 건립되는 인천보훈병원은 3년에 걸쳐 국비 437억원이 투입돼 총 130병상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하반기에는 서해 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 '온리 원, 퍼스트 인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잘 다듬고 발전시켜 인천의 가치를 높여가자는 취지다. 또 인천만의 인프라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살려 대외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지역사랑은 기본정신이다. 인천가치 재창조에는 인천만의 '온리 원, 더 퍼스트(Only one, The First)'도 포함된다. 인천은 유난히 최고(最古), 최초의 역사와 문화가 많다. 특히 중구, 동구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인천만의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한다. 분야별 7천251명을 대상으로 인천을 빛낼 인물찾기도 본격화한다. 옛 인천의 주요산성도 복원된다. 시민출입이 통제됐던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과 강화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인천보훈병원 조감도







#### 글로벌 투자 '넘버원'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간 진행된 주요 계약건으로는 라이크홀(주)송도입주기업전용기숙사 건립, 헬러먼타이 톤 자동차 부품생산 연구시설, 국내기업 R&D센터 유치 10개 기업, 올림푸스 한국, 의 료트레이딩 건립 등이다. U턴기업 국내복귀, 세종이노테크, 독일 BMW사 연구개발센 터, 홍콩의 글로벌 재벌그룹인 CTF그룹과 영종도에 2조6천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 등에 관한 MOU&LOI를 체결했고, 중국 신화련 그룹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을 위한 MOA(합의각서)도 교환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사인'20세기 폭스'와는 영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출판, 문화의 중심지로

올해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로 전 세계 출판, 문화, 인쇄의 중심지가 됐다. 책의 수도 인천에서는 책과 관련한 굵직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IT, 교육, 아동을 결합한 국제아동교육도서전,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2015 전국도서관대회가 열 릴 예정이고,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됐다. 독서 관련 우수프로그램 소개와 희 귀도서 발굴, 동네서점 살리기 등 세계 책의 수도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 행되고 있다.

#### 모두를 위한 교육, 2015 세계교육포럼

전 세계인의 교육촉제인 '세계교육포럼'이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이후의 교육의제를 수립한 뒤 성공 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앤서니 레 이크 유니세프 총재 등을 비롯해 7개 국제기구 대표, 교육계 수장 등 약 1천5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꿈의 무대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세계 골프 팬들의 '꿈의 잔치'인 프레지던트컵이 10월 6일부터 11 일까지 6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 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다. 이번 대회의 명예 의장은 관례에 따라 박 근혜 대통령이 맡는다. 팀 대항전 방식인 프레지던트컵은 미국 선수 12명과 비유럽권 국가 선수 12명 등 총 2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전 세계 225개 국가 및 지역에 30개 언어로 중계하며, 10억이 넘는 가 구가 시청한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9월 19일~10월 4일)와 장애인아시아경 기대회(10월 18일~24일)는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천 을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올려놓았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 회는 45개국 3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북한 등 OCA 45 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퍼펙트대회'로 친환경대회 국제인증까 지 받았다. 10월 4일 폐회식에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 는 캐치프레이즈로 전 세계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 첨단·신산업으로 ‘인천 다시 시작한다’

## 1. 인천미래의 밑그림

### ▷ 도시계획

- 2030 도시기본계획, IFEZ 개발계획 수립,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 복지

- 제3기 인천지역사회 복지계획, 중장기 보육계획,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 **환경** :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8 환경보존계획

▷ **교통**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 **교육** : 제2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사회적기업 종합대책

▷ **관광** :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제6차 관광개발계획, 과학기술진흥 종합대책

▷ **인천비전 2050 미래발전종합계획**



## 2. 미래먹거리 전략 산업 집중 육성

### ▷ 주력산업 고도화

- 항공산업 산학 융합지구 조성위한 항공부품 산업 혁신 거점

- 첨단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 서구 첨단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첨단자동차 부품 상품화 기술 개발

-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산업 육성

### ▷ 미래시장 선점

- 시장중심의 R&D 추진 위한 바이오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등

- 로봇생태계 기반조성

· 인천로봇랜드 조성, 로봇기업 성장지원, 로봇문화 확산 등

- 녹색금융지식 인프라 확충

· 인천 GCF포럼 및 컨퍼런스 활성화, 인천기후센터 운영

### ▷ 입지특화

- 융복합 관광메카 구현

· MICE, 의료관광 융복합 이미지 선정, 유커유치 관광 경제화, 마린나 해양관광 활성화

- 뷰티메카도시 인천

· 화장품 제조 인프라 구축, 뷰티산업 구조고도화

## 2-1. 항공산업의 리더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출발

### ▷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국내외 항공정비 기업투자유치 + 항공산업 기술혁신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 송도국제도시

· 항공 융복합 산학융합지구(R&D,인력양성, 비즈니스 거점)조성

- 남동, 주안, 부평공단

· 부품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 항공부품 생산 기지 조성



## 2-2. 새로운 한류, 인천형 의료관광으로

### ▷ 의료관광 18,000명 유치 경제적 효과 593억(진료수익 439억, 관광 154억원)

- 인천형 특화상품 개발

· 인천국제공항 환승시장 집중공약(연간 650만명 환승)

· 타킷별 특화상품 개발(크루즈 관광객, 주한미군, 유커 등)

- 의료관광 서비스 지원

· POM(Peace of Mind) 보험상품 개발, 외국인 환자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인천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 의료관광상담센터 운영 등



## 2-3. 창조경제 실현

### - 대중국 진출특화 플랫폼 구축

· 사업아이템 발굴에서 현지 인큐베이팅 공간까지 원스톱 지원

· 온라인 보부상 '仁商'육성(e-커머스 창업지원) 등

### - 물류기술기반 신산업 창출

· 물류와 IT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 물류 벤처 육성

· 항공엔진 정비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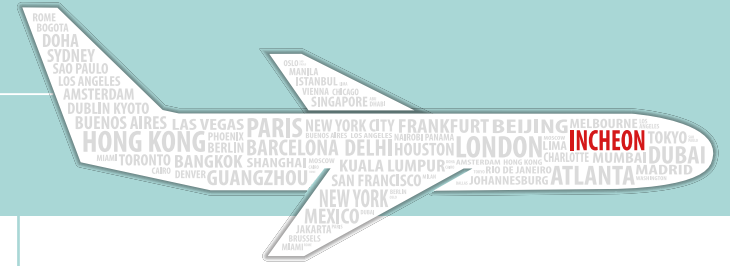
### - 중소·벤처 물류 경쟁력 제고

· 민간합동 종합물류컨설팅 운영을 통해 수출물류 경쟁력 제고

· 유망 신선 농수산식품의 해외수출 지원



민선6기 1년은 인천 도시기반의 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지난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달려 나가야 한다. 시는 인천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도시계획을 새로 짜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인천섬과 더불어 보고 느끼고 즐기는 공간으로 인천을 바꾸고 있다. 인천의 내일을 책임질 시의 주요 미래비전과 계획을 소개한다.



## 2-4. 글로벌 녹색기후산업의 중심

### ▷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및 친환경 복합플랜트 조성

### ▷ GCF 협력사업 발굴, 단계별 추진

-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초기 2년(2015~2016)

·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 녹색기후 인재양성

·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기후대응 세계협약체 참여(유치)

- GCF산업기업, 기관 집적화 - 중기 3년(2017~2019)

· 환경산업실증화단지 활용, 창조그린경제 콤플렉스 조성

· 핵심 앵커테넌트 유치(글로벌 국내외 핵심기업 기관, 국제기구 유치) 등

- 녹색기후산업의 확산 - 후기 5년(2020~2025)

· 기후금융 투자기관 유치(설립), GCF연관산업 유치 극대화

· 핵심기업 벤처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 3. 중국기반 비즈니스 시장 확대

### ▷ 인- 차이나(IN-CHINA)프로젝트

대 중국 사업의 집중관리와 유망사업을 발굴, 3대분야,

6대 전략 30개 사업의 추진목록 선정

-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 구축(10개 사업) : 친 인천 중

국인양성, 중국 교류 역량 강화

- 중국소비·내수시장 선점(8개사업) : 중국진출 전략기반 구축, 중국 소비·내수, 유망산업 육성

- 상호 교류협력체계 강화(12개 사업) : 환 황해 경제권 인천이니셔티브 확산 등



## 4. 보고, 느끼고 즐기는 인천

▷ **스토리를 느끼다 I-STORY** : 역사가 살아있는 섬 강화, 교통도 근대 문화공간 조성

▷ **평화, 섬을 지키다 Peace** : 연평도, 백령도

▷ **관광에 한류를 입히다 K-Style** :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작약도, 사령도 복합관광휴양지

▷ **자연에서 쉬다 Healing** : 세어도 예술조형

물 설치, 무의도 무의누리 바다열차, 이작도 바 다생태마을 등

▷ **섬에서 즐기다 Field Trip** : 무의도(포내, 큰무리 마을), 세어도, 승봉도 캠핑장



## 5. 미래 도시가 눈앞에

### ▷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 송도

- 스타트업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 조성

- 사물인터넷 기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가동 등

### ▷ 경제성장의 원동력,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B2B, B2C 형태의 무역상거래 플랫폼 개발

-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생산혁신도구의 기반으로 활용

## 6. 윈도심의 행복, 인천의 핵심가치

도시재생 코드네이터 마을 활동가 양성,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반구축, 도시재생 대학운영

### ▷ 인천역, 차이나타운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개선,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상상공물 조성

### ▷ 월미공원

- 해양북한전시체험관, 월미 해양북한문화단지 조성, 전망대 명소화

### ▷ 인천내항

-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 ▷ 신포동, 답동

-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아시아누들타운 등



## 7.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지원

### ▷ 영유아

- 원스톱 서비스 지원(임신, 출산, 양육 보건의료), 인천형 어린이집 신 규모입 등

### ▷ 청소년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6개소)

### ▷ 여성

- 인천안전허브마을 조성,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여성인력발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 어르신

- 평생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인천형 노인 일자리 제공(3만개) 등

### ▷ 장애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확대(290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고창균(62) 가천의과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박현주(54) 계양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장한섬(40) 플레이캠퍼스 대표, 문화기획자  
이상연(44) 인천시교육청 학부모기자단 고등부모임 대표  
김혜영(33) 소상공인 '땡큐맘 강정' 대표

## “지역사랑·주인의식이 인천을 이끎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년을 “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느라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라고 했다. 바쁘게 달려왔던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인천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준비한 ‘시장, 시민과 한 테이블에 앉다’는 인천시가 진행해온 그간의 정책들과 변화된 인천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장소는 중구 경동에 위치한 ‘카페 싸리재’. 85년 넘은 구옥(舊屋)을 개조해서 만든 문화공간이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고 스스럼없는 대화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기욱 시 대변인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하 ‘시장’) :** 오랜만에 경동에 왔습니다. 이곳은 애관극장, 신신예식장, 기독교병원 등이 있어 한때 인천의 명동 소리를 듣던 곳으로 저도 젊은 시절 자주 오가던 동네입니다. 이곳과 얽힌 추억이 많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추억도 있고 옛 정취가 느껴지는 곳에서 여러분을 뵈게 더 반갑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인천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연 :**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또, 밖에서 바라본 인천과 직접 시정을 이끌면서 느낀 인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시장 :** 지난 1년은 정말 정신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이 되자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렀으며 인천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김혜영

고창균

이상연

받으며 인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숨을 고르며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이 돼서 느낀 것은 인천의 재정이 들었던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점, 그렇지만 인천이야말로 경쟁력을 가진 도시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에서 2천600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공무원들도 수당을 반납하는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은 가치 재창조입니다. 우리시의 가치는 역사적 자산과 여건, 시민의 지역에 대한 무궁한 애정입니다.

**박현주 :** 가치 재창조라는 시정목표가 반가웠습니다. 가치 재창조의 핵심은 무엇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치 재창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 공직자는 철학과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 재창조는 인천의 모든 경쟁력을 살려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 공감하면서 함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의 바탕은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시장으로서 지역사랑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에너지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박현주** : 가치 재창조에서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활성화는 관광으로 이어지는데, 관광은 지역 사람들을 중심에 놓지는 않습니다. 관광도 긴 호흡으로, 도시의 시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외국인들이 인천에 오면 서울과는 다른 근대 개항장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관광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이나 공간의 가치에 공감하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큰 틀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 무엇이 지역의 경쟁력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천의 궁극적인 시정목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입니다. 즉, 시민이 행복한 것입니다. 인천의 문화는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유명한데, 인천시민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전국의 음악 마니아들이 찾는 페스티벌도 좋지만, 지역에 기반한 고유 문화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외국은 지역의 작은 축제를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런 문화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박현주

장한섬



**고창균** : 제가 1999년 인천상륙작전 행사 기획에 참여했는데, 민간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축제가 갑자기 세계축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 열렸던 인천디자인페어도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행사나 축제가 많습니다. 계획에 대한 신념과 확고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 재정이 어렵다고 안 하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역량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고, 문화예술, 관광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김혜영** : 저는 대전에서 이사 온 지 3년 됐습니다. 인천은 확실히 에너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카페 안에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 번꼴로 재즈연주회나 웹툰, e북 작가들을 초청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구월동에 밴드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저도 제 가게를 그런 사람들에게 공연장으로 오픈하면서 문화발전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시장** : 김 사장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생각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분입니다. 저는 모든 게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인천의 경쟁력을 살릴까 고민합니다. 인천만의 '온리 원'(only one), '퍼스트 원'(first one)이 인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한섬** :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만 신경 쓰는 듯합니다. 사람중심 시민중심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인천은 각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문화도시가 되려면 노동인권,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고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 : 문화의 본질은 다양성이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를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명칭을 바꾼 것처럼 인천을 브랜드를 삼고 인천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인천국제공항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불러져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장한섬** : 그런 관점에서 저는 동인천역 역명을 바꿔 보고 싶습니다. 1호선 타고 오면 가장 서쪽인데 왜 동인천인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 7, 8년 전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 때문에 인천에 왔을 때, 서쪽에 동구가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서구를 거쳐 동구로 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연유를 알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인천 행정구역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균** : 지역별로 도시계획을 잘하고 정비하는 것도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항, 송도, 청라를 묶어 홍보하고, 구도심인 배다리와 현책방 이야기도 스토리텔링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치를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25년 전 디자인 교수들과 디자인 나눔운동을 펼쳐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에 행정에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능기부였습니다. 아마 그때 만든 자료가 지금은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이 발전해야 인천의 높은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 그래서 제가 도시발전의 틀을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 205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이 행정구속력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행정환경이 많은 손실을 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창균** : 송도국제도시의 업무 일부가 3개구로 나뉘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3개구로 넘어가면 경제청에서 만든 기준은 없어지게 됩니다. 구도심과 신도시는 디자인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 혼란이 우려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여 있는 게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브랜드를 잘 모

르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 시민의 자발성을 여는 데 행정력이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문화,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꺾어주거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에 '독서대전'이 열리는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 장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시가 올해 책의 수도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시장** : 책의 수도는 행사가 아니라 정책이고 문화고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콘셉트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김혜영** : 인천이 대전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구월동에 살고 있지만 동인천에도 자주 놀러갑니다. 인천에서 10년 이상 살면 그리워할 것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냥 떠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가게를 열면서 청년창업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술이나 특허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자본은 없고 지원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청년들에게 지원을 잘해주는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장** : 중요한 말씀인데, 창업 혹은 구직과 관련해 우리시에서는 제물포스마트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원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적합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복지정책이 맞춤형으로 시행됩니다.

**이상연** : 시장님을 사진이나 TV에서만 뵈었는데 옆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신기합니다. 공무로 바

쁘실텐데, 아빠로서 점수는 스스로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요?

**시장** : 늘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쉽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만 있지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맡았던 그 어떤 공직보다 인천시장직이 가장 바쁩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진 못해도 각자의 일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현주** : 지난번 화도진축제 때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도진지가 한미수교체결지로 잘못 지정된 거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낸 분이 서울세관에 계시는 김성수 세관원이에요. 그분이 저랑 국립국회도서관 고문헌실에 있는 해관문서 22권을 찾아냈습니다. 개항의 역사를 22권으로 구성한 책입니다. 이 중 12권이 인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디지털화해서 책으로 내면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우리한테 선물처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3억 원이면 출간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해관문서는 시장님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시장** :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서 유명했던 도너츠라도 먹으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고, 시장인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시장, 시민과 한 테이블에 앉다' 영상은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온통인천(tv.inche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카페 쓰리재는 어떤 곳?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시장, 시민과 한 테이블에 앉다'가 진행된 장소는 예전에 쓰리재라고 했던 중구 경동 길가에 있는 '카페 쓰리재'였다. 안채는 1920년대 지은 한옥이고 바깥채는 일본식 1층 가옥이다. 카페는 1930년에 상량식을 가진 바깥채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 건물의 대들보에는 소화 5년 4월 5일 오후 3시, 입주상량(昭和五年四月五日午後三時立柱上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주인장 박차영 대표의 안내로 가옥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이곳에 오래된 한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에 무척 놀라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표는 집의 구조와 연혁, 자신이 오랫동안 수집해온 LP판과 책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2층 카페 안의 파인 벽에는 당시 흙과 지푸라기를 사용한 흔적들이 드러나 있다. 카페 쓰리재에는 '경기의료기' 간판이 함께 붙어 있다. 박 대표가 오랫동안 의료기 가게를 운영하다 손님이 줄면서 업종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쓰리재는 원도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이자 고향이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매립토지 등 인천시 소유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는 제한적으로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로 우리시는 매립지 연장사용을 불가피하게 허용했지만,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쓰레기로 인해 고통을 받아 온 인천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 최소 1조8천억원의 부가가치 확보

이번 합의로 우리시는 30년 이상 연장을 주장해 온 서울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억제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겼다.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는 매립면허권을 즉시 양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매립으로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우리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약 1천600만㎡ 규모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최소 1조8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우리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동시에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모두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이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운영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은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주변지역 지원)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에 있는 103만㎡를 사용한다. 단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정해진 시한 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

1.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화한다. 또한,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2.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 테마파크 조성사업
  -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4.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한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산금 감소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방안을 별도로 협의·추진 한다.
5.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 세계의 바다로... 다시 위대한 항해

1883년 1월, 인천항이 개항했다. 작은 포구였던 인천항은 서해 최대의 상항(商港)으로 몸집을 키우며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1일, 인천신항이 세상 앞에 모습을 당당히 나타내고, 다시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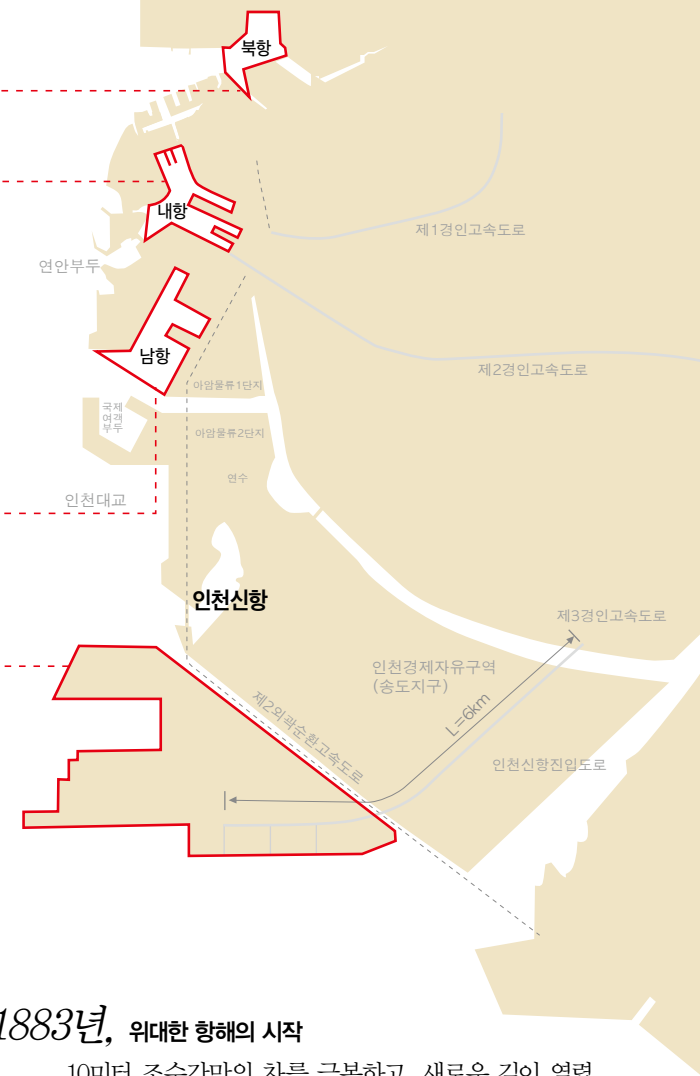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북항 (1996~2020)** ↓  
- 접안시설 : 최대 5만급 17선석  
- 배후단지 : 11만㎡  
- 도로 6.8km  
- 하역 능력 : 1,500만t

**내항 (~2003)** ↓  
- 부두길이 : 960m  
- 터미널 면적 : 211,000㎡  
- 연간처리능력 : 240,000  
- 접안능력 : 2,500TEU Class X 4

**남항 (2004~2014)** ↓  
- 부두길이 : 1,489m  
- 터미널 면적 : 611,000㎡  
- 연간처리능력 : 880,000  
- 접안능력 : 4,000TEU Class X 2  
2,500TEU Class X 3  
300TEU Class X 2

**인천신항 (2015~)** ↓  
- 부두길이 : 1,600m  
- 터미널 면적 : 960,000㎡  
- 연간처리능력 : 2,400,000  
- 접안능력 : 10,000TEU Class X 4  
(~ 2017 : 8,000TEU Class)  
(2018 ~ : 10,000TEU Class)



### 1883년, 위대한 항해의 시작

10미터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 1883년 1월, 인천항이 개항하면서 대한민국은 더 큰 세상에 눈뜬다. 인천의 바닷길을 따라 새로운 세상의 문물이 전해지고, 꿈을 찾아 수많은 사람이 오갔다. 철도가 놓이고 항만이 건설되고, 각국 영사관과 근대식 은행, 극장, 공원 등이 생겨났다. 인천 최초는 곧 대한민국 최초가 되었다. 작은 포구였던 인천항은 서해안 최대의 상항(商港)으로 점점 거대해져가며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항은 인천항이 품을 열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됐다. 그 역사는 백제가 중국 동진과 통교를 시작한 근초고왕 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량산 서북쪽 끝자락에 있는 능허대는 그 옛날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출발했던 나루터가 있던 자리다. 대한민국 역사 최초의 자의적 개항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1일, 인천신항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다시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



1883년 개항 당시 인천항



## 2015년, 제2의 개항을 열다

새로 난 도로를 따라 송도국제도시 서남단을 달리다 보면 LNG 인수기지 앞에 있는 인천신항에 다다른다. 진입도로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고간다. 먼 데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대형 크레인들이 신항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부두 한편에서는 매립작업이 한창이다. 인천신항은 송도국제도시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메워 조성한 항만이다.

지난달 1일, 인천신항이 총 3단계 중 1-1단계로 우선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다.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하는 B터미널 부두 800m 가운데 410m 구간으로, 지난 2007년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이다. 한진(株)에서 건립하는 A터미널 부두 800m는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총 1.6km 부두가 조성된다. 인천항 전체 선석 수는 A, B터미널 6개를 포함해 모두 129개 선석으로 늘어났다.

우선 개장한 신항 터미널은 14만5천㎡로,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다. 현장에서 만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의 홍진석 부장이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한다.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게이트에서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조회하고 선석 배정하는 과정도 자동화 시설이 알아서 척척 진행합니다. 이러한 최신틢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터미널은, 우리나라에서 부산신항에 이어 인천신항이 두 번째입니다.”

신항으로 향하는 첫 관문은 자동화 게이트. 컨테이너를 가득 쌓아올린 차량이 게이트를 통해 인천신항 터



미널 장치장에 진입한다. 게이트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가 차량과 컨테이너에 등록된 정보를 읽고 신속하게 야드 위치를 배정한다. 차량에 부착된 RFID(무선인식) 카드와 컨테이너에 장착된 무선인식 칩은 컨테이너 운송사에서 미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발급한 것이다. 컨테이너 운전기사는 마치 주차장에서 주차증을 뽑듯, 야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받아 하역 장소를 찾아 간다. 덕분에 넓은 터미널 한가운데서도 차량들은 지체되는 일 없이 알아서 각각 제 갈 길을 찾아간다.

컨테이너를 내리는 작업도 원격조종을 통해 사실상 자동으로 진행된다.

“기사님, 차량을 20cm 뒤로 이동해 주세요. 아니, 조금만 더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 그만. 네. 좋습니다.”

크레인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100m 떨어진 통제실에서 안내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이윽고 차량 위치가 자동화 시스템에서 ‘0포인트’에 맞춰지고, 야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18m 높이까지 번쩍 들어 올려 배에 싣는다.





부두에는 압도적인 몸체의 갠트리 크레인 다섯 대가 위풍당당 서 있다. 크레인은 철길처럼 생긴 레일 위를 따라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집채만 한 컨테이너를 척척 들어 옮긴다. 초대형 크레인이 들어 올린 컨테이너는 대기하던 트럭에 실려 목적지를 향해 바로 달려간다.

그리고 내일, 더 큰 세계의 바다로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 인천신항 터미널에 6천8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도쿄호’가 닻을 내렸다. 현대도쿄호는 세계 2대 해운선사 동맹인 G6의 정기 컨테이너선으로, 길이가 무려 303,83m, 선폭 40m, 깊이 24,2m, 무게 7만4천651t에 이른다. 1883년 인천항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입항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날 현대도쿄호가 인천항에 내린 컨테이너는 495TEU에 이른다. 인천신항의 개항으로 남향 최대 물동량인 4000TEU의 네 배나 되는 1만6000TEU급 선박이 인천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하늘 높이 쌓인 육중한 컨테이너는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온 인천의 힘을 상징한다. 그 웅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다. 미국 오클랜드항에서 항해를 시작한 이 거대한 선박은 아침 해가 뜨기 전, 중국 칭다오 항을 향해 다시 닻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14만급 크루즈 두 척이 인천신항에 입항했다. 시는 화려한 한국 전통 갈라쇼로 세계인의 방문을 환영했다.

인천신항	1단계	2단계	3단계
완공시기(년)	2015	2020	미정
부두 길이(m)	1,600	1,700	2,460
터미널 면적(㎡)	960,000	1,020,000	1,476,000
접안 능력	10,000TEU 급 X 4	10,000TEU 급 X 3 8,000TEU 급 X 1	16,000TEU 급 X 5
배후 부지(㎡)	2,118,000		4,073,000

인천항이 개항한 지 132년, 인천신항이 품을 열면서 인천은 제2의 개항을 맞았다. 인천신항에는 총 3단계로 사업비 5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컨테이너부두 25선석, 일반부두 4선석 등 총 29선석 및 항만배후부지 619만1천㎡를 조성하게 된다. 8천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수시로 입·출항할 수 있는 규모와 수도권과 국제공항이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어, 물동량만 정기적으로 확보한다면 단연코 우리나라의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 이제 인천신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를 넘어 미주와 유럽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도약하기를 앞두었다. 닻을 올리라. 더 큰 바다를 향한 인천의 위대한 항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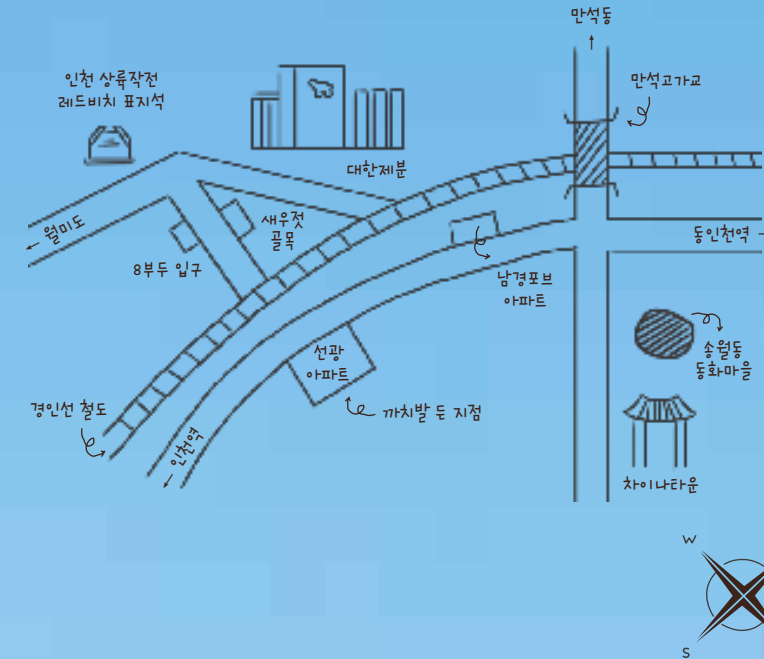


## 멀어진 바다, 사라진 비린내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역 주변에 있는 선광아파트 옥상에서 인천항 쪽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갑문식 선거(DOCK) ② (옛)수협 위판장 ③ 새우젓 골목 ④ 경인선 복선 ⑤ 만석외곽우회고가교 ⑥ 레드비치 표지석 ⑦ '곰표' 밀가루 대한제분



**까치발을 든 지점** | 북성동 선광아파트 (중구 북성동 2가)

선광아파트는 1996년 경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 부근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고층아파트다. 7층에서 16층으로 구성된 한 동짜리로 106가구가 입주한 작은 아파트다. 이번 호 까치발 지점은 이 아파트 16층 옥상이다. 인천역 주변은 역세권임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별로 없다. 그 덕분에 이 아파트 옥상의 시야는 아주 좋은 편이다. 한쪽으로는 자유공원과 그 밑 송월동 일대가 보이고, 그 반대편으로는 월미도와 인천항 부두 일대가 훤히 보인다. 조금 더 발을 들면 바다 건너 영종도 일대가 눈에 들어온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응봉산(자유공원) 줄기가 내쳐 달리다 바다와 맞닿으며  
'곶(串)'이 되었다. 1878년 조선 조정은 이양선(異樣船)을 막기 위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북성포대를 설치했다.  
곶은 포구가 들어서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선들이 갯것을 싣고 들어오면서 활기 넘치는 선창가가 되었다.  
도크가 생기기 전에는 바다의 물 끝이 철도 끝나는 지점 바로 밑까지  
밀려들어 왔다. 도크가 확충되고 부두와 어시장이 옮겨가면서  
바다는 땅으로 메워졌고, 이 동네를 먹여 살린 비린내는 바로 사라졌다.



① **갑문식 선거(DOCK)** : 조수 간만의 차가 최고 10m에 달하는 인천항은 갑문식 선거 시설  
이 필요한 항구이다. 1911년 공사를 착수해 1918년 근대적 갑문식 항만인 제1도크가 건설되었  
다. 현재의 인천항은 1974년 5월 10일 제 2도크가 완공되면서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  
1966년 4월 소월미도와 월미도 사이를 매립하기 시작해 8년 만에 갑계(수로)와 갑문을 갖춘  
국제항의 면모를 갖춘다. 이 공사에는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됐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대  
전 간만큼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사진은 준공식 날 기념식장(월미도)으로 향하는 학생, 시  
민들의 모습이다.

② **수협 위판장** : 인천역 뒤편에는 앞바다에서 건어 올린 생선을 경매하는 수협 위판장이 있  
었다. 주변에는 어시장의 좌판들과 어물전 수십 개가 성시를 이루었다. 조기를 비롯한 어류와  
굴, 조개 등의 패류를 취급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인천 시장 상인들은 하인천에서 수산물  
을 사다가 팔았다. 서울을 오가던 '다라이' 생선아줌마들은 70년대 전철 속 한 풍경이었다. 광  
복과 6.25 전쟁을 거친 뒤에도 오랜 세월 수도권의 중심 어시장이었던 하인천 부두는 1975년  
항동의 연안부두로 어시장이 옮겨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③ **새우젓 골목** : 인천항 8부두 정문 건너편에는 앞바다에서 잡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보관  
하던 창고와 가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새우젓 골목이라고 불렀다. 사시사철 골목 이  
곳저곳에 새우젓 독이 일렬로 사열받듯 세워져 있거나 빈 통으로 나뒹굴었다. 새우젓뿐만 아  
니라 건어물 가게들도 함께 있었다. 부두가 사라지면서 새우젓도 함께 떠나버렸다. 빈 창고와  
가게에 인근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이 들어와 구들을 놓으면서 쪽방촌이 되었다. 지붕 높은 집  
들의 낡은 외벽에 종천연색 그림이 그려졌다. 마치 팔순 노파의 얼굴에 색조화장을 칠해 한 어  
색한 모습이다.

④ **경인선 복선** : 1899년 경인철도가 놓인 이래 65년 동안 철마는 외길로 다녔다. 단선(單線)이었기 때문  
에 상하행선 기차가 마주치면 기차 한쪽은 멈추고 기다려줘야 했다. 경인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선 기차길로는 폭주하는 수송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1962년 경인선 복선화 공사를 착공해  
1965년 9월 18일 두 선 철길이 깔렸다. 한국철도 65년 만에 복선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복선 개통을 축  
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종착역 인천역에 도착하는 시승 행사를 했다.

⑤ **만석외곽 우회고가교** : 부두 주변은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의 통행으로 늘 번잡하다. 이런 차량이 도  
심을 통과하게 되면 도로 파손, 교통 사고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100주  
년기념탑부터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약 2km의 만석외곽우회고가교를 건설했다. 89년 12월 착공해 93년 12월  
에 개통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우회고가 철거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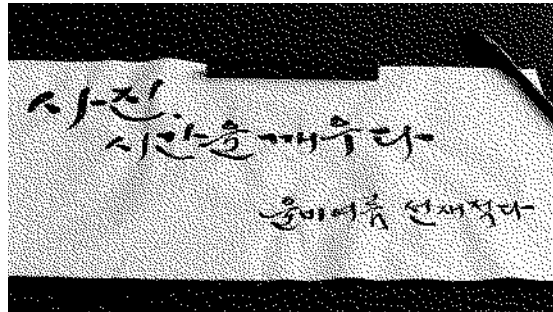
⑥ **레드비치 표지석** : 1950년 9월 15일 새벽, 유엔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의 지휘로 인천상륙작전이 전격  
실시되었다. 이는 6·25전쟁의 전황을 역전시키는 전기가 되었다. 유엔군은 인천의 세 지점으로 들어왔다.  
인천지명에 낯설었던 그들은 그곳을 그린비치 (월미도), 레드비치 (북성동 대한제분 인근), 블루비치 (옹현동  
낙섬사거리)라 명명했다. 레드비치에 상륙한 미국 제5 해병연대는 오후 5시 30분경 만석동 묘도 고지를 점  
령하였다. 상륙 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94년 9월 세 곳에 표지석을 건립하였다.

⑦ **'곰표' 밀가루 대한제분** : 1952년 원자재 밀을 들여오기 편한 인천항 부근에 설립된 대한제분은 문을  
연 지 1년 만에 1일 생산 능력이 5천포대를 넘어섰다. 이는 제분업계 단일 규모로는 동양 최대 시설이었다.  
오랫동안 배고팠던 우리나라 국민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곰표' 밀가루로 배를 채웠다. 1960년대 매출 기준  
으로 제일제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 서열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큰 회사였다. 한동안 우리는 아  
침은 국수, 점심은 굵고, 저녁은 수제미를 먹을 만큼 밀가루는 우리의 주식(主食)이었다.



## “나를 표현하는 글자체 갖는 게 꿈”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선재 캘리그래피 스튜디오. 언뜻 들으면 요즘 유행하는 감성 가득한 손글씨를 배우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다. 아주 잘못된 생각도 아니다. 이곳은 서예와 캘리그래피, 문인화를 배우는 새로운 느낌의 서예학원이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해원(27)씨는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최근 전국대회인 인천서예대전에서 대나무에 한글을 쓴 문인화로 대상을 받은 전도유망한 신예 작가다. 작가는 일곱 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서예와 바둑을 시작했다. 맛벌이하는 부모님 덕분에 서예와 바둑학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서예는 지루하기는커녕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였다.

“어릴 때부터 하얀 화선지에 먹이 스며드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먹을 갈 때 코끝으로 풍겨오는 묵향에도 취했지요. 서예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홀로 정진하고 노력하는 작업이어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곱 살에 시작한 서예는 21년 만에 인천서예대전 대상이라는 결실을 안겨주었다. 대상 작품의 제목은 ‘행복한 시간’이다.

인천이 고향인 이해원 작가는 줄곧 서예만 하다가 지금은 문인화와 캘리그래피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수순이다. 글씨를 쓰다가 문인화로 넘어가는 과정은 예인들이 걷는 길이었다. 작가는 문인화를 배우면서 묵의 농담으로 그려지는 고고하고 단아한 세계에 흠뻑 빠졌다. 캘리그래피는 서예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영역이기에 쉽게 접근하고 쓸 수

있었다.

이 작가의 학창시절 꿈은 대통령이었다. 초중고 시절 학급반장, 전교회장을 빼놓지 않고 맡을 정도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고, 정치를 하려면 성적도 우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다. 인하대 행정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의 꿈을 접었다. 대신 서예에 더 매진해 자신만의 한글서체를 만들겠다는 꿈이 생겼다. 판본체, 흘림체, 궁서체 등 한글과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싶어 한다.

‘요즘도 매일 4~5시간씩 글씨연습을 하고, 작품을 할 때는 11시간씩 글씨와 그림을 그리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쓰면 쓸수록 만물의 이치와 세상을 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묘한 세계에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작가는 고전과 현대를 접목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서예학원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햇빛도 들지 않는 우중충한 학원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현대적 디자인과 세련미로 서예학원의 이미지를 바꿨다. 참신한 공간에서 고전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은, 갈수록 줄어드는 서예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꽤 좋은 영향을 줄 듯싶다.

“서예를 하면 힐링이 돼요. 아이들은 인성이 좋아지고요. 영어, 수학만 공부하는 아이들은 내면을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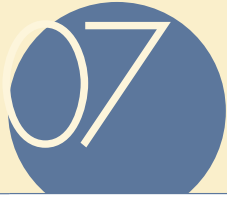
이 작가는 평생에 걸쳐 글쓰기를 해왔던 스승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CULTURE INFO

PERFORMANCE

EXHIBITION

MOVIE


CONCERT

MUSICAL

DRAMA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3</b> <b>오페라 '사랑의 묘약'</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b>10개국 하우스 콘서트 축제 'One Month Festival'</b>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1만원 ☎580-1135	<b>4</b> <b>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 '미스터 웅!'</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1	<b>애니메이션 '로코왕국의 전설 : 엘프킹을 찾아서'</b>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b>7</b> <b>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씨네마 콘서트'</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초대 ☎6292-9370	<b>8</b> <b>무대에서 꽃피는 우리 신화 '오늘, 오늘이의 노래'</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7-5996	<b>10</b> <b>황금.토.끼 The Muse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b>라스트포원의 비보잉 갈라쇼 'ONE DREAM'</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b>11</b> <b>2015 김범수 갯을라잇쇼 'Before &amp; After'</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2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1566-6551	<b>제24회 인천무용제 (Wiz World Dance Festival)</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초대 ☎865-5474	<b>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춤의 향연'</b>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b>애니메이션 '샌드맨과 꿈나라 모험'</b>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b>12</b> <b>2015 정동하 전국투어</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070-4069-8337	<b>미추요들클럽 '악기와 노래의 어울림'</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6시 무료 ☎010-3241-5011	<b>14</b> <b>제23회 새얼 국악의 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885-3611	<b>편식쟁이 대모험</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전 11시 무료 ☎760-7348								
<b>15</b> <b>2015 커피콘서트Ⅶ 라 벤타나 '재즈로 듣는 탱고의 열정'</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1만5천원 ☎1588-2341	<b>편식쟁이 대모험</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전 10시 10분, 11시 15분 무료 ☎760-7348	<b>17</b> <b>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사랑태교음악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초대 ☎420-2781	<b>황금.토.끼 콜라보레이션 길 위의 음악이야기</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b>연극토크콘서트 '저...살림해도 될까요?'</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b>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 '오페라 아리아의 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742	<b>코미디 서커스 '퍼니스트쇼'</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b>애니메이션 '아바타 정글의 비밀'</b>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b>18~19</b> <b>가족뮤지컬 피노키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만원 ☎010-4365-5454	<b>19</b> <b>부활30주년 기념 콘서트 in인천</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02-515-1217	<b>21</b> <b>인천청소년교향악단 30주년 기념음악회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클래식 향연 '음악에 꿈을 던져보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38-6040	<b>22</b> <b>국악체험 뮤지컬 '당실당실 깨비깨비'</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시 30분 1만5천원 초등학교 단체 1만원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6천원 ☎02-2654-6854	<b>24</b> <b>황금.토.끼 집시의 열정! 플라멩고</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b>극단 락버스의 낭독공연 '양반전'</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b>25</b> <b>풍요와 다산의 기원 '까막까치 말씀 적에' (황해도 평산 소놀이)</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초대 ☎772-4331	<b>애니메이션 '초원의왕 도제'</b>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67								
<b>25~26</b> <b>리틀동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1544-3901	<b>26</b> <b>베누스토 경인지부 윈드오케스트라 2015년 정기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1만원 ☎010-9398-2414	<b>29</b> <b>밤마실 극장</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35-7172	<b>최윤미 트리오의 '7days'</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7-5996	<b>김진희 개인전</b>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7월 8일~22일	<div>이 달의 展</div> <div></div> <div>행복연주/ Acrylic / 50 x 80/ 2015</div>	~ 8월 30일 어린이 색깔체험전시 '열령동땅 색깔공장'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7월 1일 ~ 7월 12일 미술영재 사제동행전 & 갤러리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월 3일 ~ 7월 9일 2015년 제33회 제물포 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7월 8일 ~ 7월 22일 박희순 개인전 - flowing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7월 8일 ~ 7월 22일 김진희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7월 10일 ~ 7월 12일 제35회 인천광역시 공예품전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7월 17일 ~ 7월 23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7월 24일 ~ 7월 30일 임병열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7월 27일 ~ 8월 21일 다양한 무척추 동물 두 번째 이야기 - 렌즈로 자연을 만나다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7월 27일 ~ 8월 21일 제39회 일수회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b>어쿠스틱 국악그룹 '양상블 다나루'</b> 연수구 부수지근린공원 오후 7시 30분 무료 ☎821-6229	<b>어린이 음악회 '교문 앞 클래식'</b>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30분 1만원 ☎580-1163	<b>스크린 콘서트 'Spirit of Beethoven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b> 청라국제도시 야외공원 오후 8시 무료 ☎580-1155	<b>31</b> <b>우리아이 첫 감성 눈높이 체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 ‘메르스 극복’ 위한 종합대책 시행

우리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공서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서 주 1회(매주 금요일)로 늘린다. 인천 10개 군·구도 구내식당 휴무에 적극 동참하기로 지난 달 24일 군수·구청장 정례회의에서 뜻을 모았다.

또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인천 화장품 제조사 공동 브랜드 ‘어울(oull)’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기초·기능 화장품과 헤어제품을 정가보다 30~60%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어울 화장품은 인천 화장품 제조업체의 공동 판매장인 ‘휴띠끄’에서 주로 판매해 왔는데 6월 매출액이 지난달의 10% 수준에 머물 정도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휴띠끄 매출액 감소는 전체 고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인천 방문이 잇따라 취소됐기 때문이다. 6~8월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던 중국 관광객 3천 명이 방문계획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시는 1천700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금도 조기 지원한다. 인천 일반 제조업체에 5억원 한도에서 최고 2%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비전·향토기업, 고용 우수 인증기업은 8억~20억원 범위에서 2%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3분기 지원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시 자치행정과 ☎440-2422

##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비상급수 상황실 운영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비상급수 상황실 운영은 올해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고, 한강, 팔당수계 다목적 댐 저수율 및 수위가 일부 바닥을 보이는 등 가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수자원공사, 시·군·구와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서지역 가뭄 대비 급수 지원 등 상수도 공급감량에 따른 총 4단계의 상황별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제한(비상)급수 및 절수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해수담수화시설의 타당성 검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가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섬 지역과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 급수난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및 장기간 가뭄에 따른 육지의 물 부족에 대비해 수돗물을 아껴 쓰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의 인천상수도사업본부 ☎720-2121

##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운북IC 교통통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에서 우측 방향 도로인 영종해안북로 운북IC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2018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대비해 기존 왕복 4차로인 해당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교통을 차단한다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교통 통제 기간 장봉도, 신도, 을왕, 왕산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공항신도시 분기점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인천국제공항공사 ☎1577-2600

##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시청 민원실로 통합

우리는 지난 달 19일 ‘인천광역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시청 종합민원실로 통합·이전했다.

시는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금융 애로사항 상담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생활경제과 두 곳에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더 나은 상담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시청 종합민원실로 통합·이전했다.

금융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기관별 상담요일에 맞춰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440-5663, 5666)로 문의하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시 생활경제과 ☎440-4214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확대

우리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대상품목을 15개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의 품목만 수거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전자레인지, 오디오세트, 데스크톱 PC세트 등 품목이 추가돼 대상품목이 15개로 확대됐다.

또한, 대상품목 배출 시 병행 배출만 가능하던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크기에 관계없이 5개 이상 묶음 배출하면 별도 배출이 가능하다.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는 폐가전제품 배출정보 시스템(www.edtid.co.kr)이나 콜센터(☎1599-0903) 또는 카카오톡(D:weec)으로 신청 예약하면 예약일에 수거 및 운반 전담반이 가정을 방문해 제품을 수거한다.

문의 시 자원순환과 ☎440-3573

## 영종도 첫 소방서 업무 개시

영종도 지역 첫 소방서인 인천공항소방서가 지난달 22일 문을 열었다.

중구 운서동 공항북측지원단지에 자리 잡은 인천공항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71명과 소방차 등 장비 2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옹진군 북도면을 담당 지역으로 둔다.

한편 종전에는 영종도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서부소방서·중부소방서·공단소방서에서 소방인력이 출동했지만 이 소방서 모두 공항까지 거리가 30~33km나 돼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다.

문의 인천소방안전본부 ☎870-3010





### 어린이집 CCTV 설치율 증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인천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전체 어린이집 2천305곳 중 1천37곳(45%)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 평균치 42.5%보다 높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 당시 전체 2천308곳 중 835곳(36%)이 CCTV를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 202곳(9% 포인트)이 CCTV를 새로 설치한 셈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문의 보육정책과 ☎440-2839

### ‘손안에 들어온 도서관’



인천지역 29개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 통합전자도서관 (ebook.incheon.go.kr)’이 구축됐다.  
 우리시는 인천시는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념사업의 하나로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합전자도서관은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도서관증을 발급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PC·태블릿PC·스마트폰 등으로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 신착도서 350여 종과 외국어 도서 5천400여 종 오디오북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분야의 전자도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문의 시 문화예술과 ☎440-4005

### 외국인이 살기 편하게~

우리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시정 모니터단’을 발족했다.  
 외국인 모니터단은 강사·통역사·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주민 15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은 1년간 시정 발전 아이디어와 외국인 입장에서 생활 불편사항의 개선 의견을 이메일·팩스 등으로 제안한다.  
 시는 접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시에는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8만2천여 명이 살고 있다.

문의 시 다문화정책과 ☎440-2802

### 영종역사관 내년 하반기 개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지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유물을 전시할 역사관이 들어선다.  
 중구는 최근 영종역사관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중구 중산동에 들어서는 영종역사관은 연면적 2천970㎡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예산 107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관할 예정이다.  
 역사관에는 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됐던 유물과 과거 영종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중구청 ☎760-6484

### 인천의료원 방문 메르스치료 의료진 격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시진료소를 방문해 메르스 환자 치료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인천의료원은 중동지역에서 병을 얻은 감염자가 인천공항에서 감지될 경우 1차로 보내지는 국가지장병원이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확진자 발생 시 병원과 지역에 전파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자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의료원은 음압병실 3실을 갖추고 있으며, 더 많은 환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6실의 격리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 4명이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201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예정



제22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가 지난달 16일 개최됐다. 시의회는 7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4 회계연도 인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7월 8~10일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누리과정 사업 등 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 질의를 벌일 계획이다.

### 도시지역 가뭄관련 식수대책 간담회

김경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 수도사업소 및 오진군 관계자와 함께 도시지역 가뭄관련 식수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청·소청·연평도 현지출장 결과 관정 개발 및 해수담수화 추진 등 건의사항과 송봉도 및 소이작도의 송수관로 교체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의결

인천시의회회는 지난달 16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규탄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후 4년간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할 예정인 점을 고려, 역사 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의결했다.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노력

인천시의회회가 지역사회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영훈 의원(새누리당, 남구 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7월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인천 시민들은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간적·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은 춘천, 청주, 전주 등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에는 배치돼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 “지역 현안사업에 주민의 뜻 반영하겠습니다”

■ 김금용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안 업무가 많다. 워낙 굵직 굵직한 정책, 건설사업, 교통 등을 다루기에 업무의 중요성도 높고 파급력도 크다. 그래서 건교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금용 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겠다”며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서해5도서를 비롯한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동인천역 재개발 등의 개발 사업이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더디게 진척되고 있지만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LH 등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사업자분을 교환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도 신항 개항과 남항 아암물류2단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인천이 서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항은 각종 물류와 관광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로 인천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시의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동참하고 있다.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불요불급하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면 삭감해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천시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사 부채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기쁘고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가장 보람된 일은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 돈이 없어 참고서를 사지 못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후원자들을 연결, 이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받아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만날 때도 시간대를 달리해가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난다.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을, 저녁시간에는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다. 33년간 지역정치를 해왔기에 누구보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가 열려있다. 인하대학교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인천의 싱크홀(Sinkhole)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하철 공사장, 도로 주변에 싱크홀이 우려되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부하는 ‘연구모임’을 만들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듣고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문학산입니다. 인천의 풍경을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탁 트여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겁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6대 구의원, 7대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시민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세 곳을 추천한다면 어디를 강추하시겠습니까?**

월미문화의거리, 인천대공원, 대청도를 추천합니다. 월미문화의거리는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해변공간이고, 인천대공원은 시민휴식 자연녹지공원이며, 대청도는 섬 전체가 해수욕장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평소 즐기는 애송시나 애창곡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누구의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애송시는 류시화 시인의 ‘들풀’입니다. 욕심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들풀의 삶’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최근 보신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에 대한 느낌과 감동적인 장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장수상회’를 봤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력강화를 위해 평소 하시는 운동은?**

저는 매일 이른 아침에 한 시간 이상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인 바람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의 건강입니다. 특히 8월에 며느리가 둘째 손주를 출산할 예정인데 건강하게 순산했으면 합니다.

## “교육서비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최용덕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천은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구도심은 학생이 줄고 신도시는 학생이 늘고 있어서 학군재배치가 교육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용덕 교육위원회장은 재원조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위원장으로선 인천 교육현실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재선의원인 최 위원장은 시의 재정 건전화와 인천 정체성 발견에도 관심이 많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불필요한 예산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거나 삭감하고,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부가 교육서비스에서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차원에서라도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다.

최 위원장은 인천의 학력이 타 지역에 비해 낮긴 하지만 최근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한다. 일례로 송도국제도시 중학교는 강남권 중학교들과 대등한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 내에 우수 학교들이 속속 생기면서 인재들을 흡수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채드워국제학교, 포스코자사고, 과학교, 하늘고와, 졸업 후 100% 취업이 되는 도화기계공고 등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경미한 범죄로 교화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꼽았다.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특강이 끝난 후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



강 이후 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해 보호관찰소 등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생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장학금 지급하도록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위원장 활동 말고도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구도심의 발전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구도심 문제를 연구하는 세미나 또는 의원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틈만 나면 지역구를 다니며 주민들을 만난다. 민원인, 지역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주민과 교류하는 데 최고라고 믿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천을 책임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쏟으며 교육 현장을 누비고 있다.

### 즉문즉답 – 私私로운 이야기

**인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수봉공원을 좋아합니다. 수봉공원은 도시의 숲이고 허파이기도 하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겁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가난을 극복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 사업 실패 후 인천으로 와서 자영업업을 했는데 그때 장사가 잘 났습니다. 가게가 주안 5, 6공단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홍보하느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다음 날 새벽 1시에 문을 닫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인천을 방문할 경우, 세 곳을 추천한다면 어디를 강추하시겠습니까?**

월미도, 강화도, 백령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월미도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고,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며, 백령도는 점경지역이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취미활동 하는 게 있으신가요?**

서예를 합니다. 20세 때부터 글씨를 썼고 특히 머리가 복잡할 때 붓을 잡는 편입니다.

**최근 보신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에 대한 느낌과 감동적인 장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린 ‘명량’을 봤는데, 이순신의 기백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어떤 여가활동을 즐기시나요?**

시간이 나면 주로 산행을 합니다.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면서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 { INFO BOX }

### 해반, 청소년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해반문화와 인천시 동구청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역사, 문화, 전통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인문학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문화소식을 바르게 익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역사문화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대상 및 인원** 동구 소재 초등학교 및 가족 30명

#### 프로그램 세부일정

- 1회차
  - － 7월 11일(토) 오전 9~11시, 성균관 유생들의 전통체험과 선비정신
  - － 전통놀이 체험 : 고누놀이, 달팽이 놀이
- 2회차
  - － 7월 25일(토) 오전 9~11시, 문화재 사랑과 현장 모니터링
  - － 전통놀이 체험 : 전통실뜨기, 고무줄놀이
- 3회차
  - － 9월 5일(토) 오전 9~11시, 동구의 근대문화재 알아보기
  - － 전통놀이 : 둥근딱지 놀이, 만칼라 놀이
- 4회차
  - － 9월 12일(토) 오전 9~11시, 동구가 낳은 인물 찾아보기
  - － 전통놀이 체험 : 비석치기, S자 놀이
- 5회차
  - － 10월 10일(토) 오전 9~11시,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모든 것 익혀보기!
  - － 전통놀이 체험 : 공동체놀이, 뭇 잡기

**참가비** 무료

**교육장소** 동구 화도진 사랑채

**문의** 761-0555

### 인천인력개발원 단기과정 교육생 모집

인천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CAD/CAM활용 머시닝센터

**교육기간** 7월 13일(월)~11월 20일(금) 4개월

**특전** 교육비 전액 국가지원(가속사, 식비 등), 자격증취득, 교육장려금 지급(매월 20만원), 수료 후 취업알선 등

**신청자격** 7월 13일(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검색창에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또는 ic.korchamhrd.net

**교육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문의** 810-6520~5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란에 'ic6520' 입력 후 실시간 상담

### 인천학생문화교육회관, 7월 무료 방학문화교실

인천학생문화교육회관에서는 방학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방학문화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방학 문화교실

- 대상 : 인천 관내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 일시 : 7월 28(화)~7월 31(금), 9시 30분~11시 30분
- 내용 : 탁구, 미술, 도예, 오키나, 난타, 동화스피치, 가야금, 우쿨렐레, 캘리그래피, 골프, 밸리댄스, 발레 등
- 접수기간 : 7월 14일(화) 오후 4시~17일(금) 오후 4시 홈페이지 (www.iecs.go.kr) 선착순 모집
- 문의 : 760-3466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전통문화예절학교'

연수문화원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절학교를 개최합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초등학교생~중학생

**날짜** 8월 22일(토), 29일(토), 9월 5일(토), 12일(토) 중 선택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원인재 (문화재자료 제5호, 원인재역 1번 출구 50m)

**접수기간** 선착순 마감

**문의** 821-6229

### 연수문화원, 2015년 여름방학 특강

연수문화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특강을 단기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일시	프로그램명	재료비 및 수강료
아동	7월 28일~8월 18일 11~12시	건축조형 만들기(4주 코스)	수강료 : 무료 재료비 : 3만원
	7월 30~8월 20일 오후 4시 30분~5시 20분	도자기 찰흙놀이(4주 코스)	수강료 : 2만원 재료비 : 2만원
	7월 29일~8월 19일 오후 4시 30분~5시 20분	입체 종이접기 "로봇 x-ray" 입체 종이 인형 외 3종	수강료 : 무료 재료비 : 1만2천원

**신청방법** 인터넷(call.yeonsu.go.kr) 및 연수문화원 방문

**문의** 821-6229

## { INFO BOX }

### '얼렁뚱땅 색깔공장 체험전시'

부평구문화재단은 아이들의 감성을 높여주는 오감만족 색깔여행 '얼렁뚱땅 색깔공장'을 열고 있습니다. 색을 테마로 한 4개의 방을 탐험하며 색에 대해 온몸으로 느끼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명** 어린이 색깔체험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전시기간** 6월 27일(토)~8월 30일(일)

**체험시간** 오전 10시,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12시  
(평일 단체관람 시간)

오후 1시 30분, 2시, 2시 30분 3시, 3시 30분, 4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백운역 2번출구 도보 5분)

**입장료** 1만5천원(어린이/성인 공통)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소요시간** 80분

**문의** 500-2072

### 장애인복지·등록 전화 안내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상담전화입니다.

**장애인복지혜택 안내 상담전화 888-1030**

장애인 전화는 장애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전화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 정보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 안내.

지역사회 장애인 이용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안내.

장애인 생활·요양시설 안내.

**장애인등록 안내 상담전화 885-9494**

장애인등록 안내 상담전화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장애등록절차, 판정기준, 판정시기, 판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법정장애 판정 매뉴얼 안내**

• 신체적장애 : 지체(절단, 관절, 기능, 척추, 변형),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호흡기, 간, 간질, 심장, 장루(요루), 안면(변형).

• 정신적장애 :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 이용방법 : 전화상담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상담 : www.ijy.or.kr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기교육

인텍스루트코리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재기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연 매출액 1억5천만 원 미만의 폐업 예정 소상공인과 기 폐업 소상공인

**교육시간** 총 10시간(1일차 6시간, 2일차 4시간)

**교육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0(부평동, 여산빌딩 10층)

(주)인텍스루트코리아

**지원방법** 방문접수

**문의** 070-5055-5343~4, 070-8233-0015

### 2015 금요낭만다방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볼공연장에서는 7월을 맞아 격조있는 문화공연을 펼칩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이 인천시민을 찾아 갑니다.

- 일시 : 7월 3일(금) 저녁 8시 (6월 12일 공연 연기에 따른 일정변경)
- 장소 :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
- 관람료 : 무료(예약 www.tribowl.kr)
- 출연자 : 연극인 박정자, 시인 나태주, 재즈 기타리스트 이수진
- 내용 : 2015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하여 낭독 콘서트 및 재즈공연 등을 진행
- 문의 : 760-1014

**2015 트라이볼 클래식 시리즈 특별프로그램 - 원 먼스 페스티벌**

7월 10일(금) 저녁 8시 - 김책 트리오

7월 17일(금) 저녁 8시 - 위 솔로이스츠

7월 24일(금) 저녁 8시 - 알레프 기타 콰르텟 내한공연

7월 31일(금) 저녁 8시 - 피아니스트 박창수 & 김영희 무트댄스

• 장소 :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

• 출연자 : 퍼커셔니스트 김책, 위 솔로이스츠, 알레프 기타 콰르텟, 박창수, 김영희 무트댄스 등

• 문의 : 760-1014



## { INFO BOX }

### 클래식연주와 공연 프로그램

인천시립박물관 컴팩스마트시티에서는 도시 속에서 펼쳐는 클래식 연주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컴팩 마수 예술극장

- 내용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관람 영화,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제목 : 볼트(7월)
- 일시 : 7월 29일(수) 오후 7시~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신청 :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 문의처 : 850-6030

#### 컴팩 커피콘서트

- 내용 : 도심 속 클래식 산책 - 인천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 일시 : 7월 15일(수) 오후 12시 20분~오후 1시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1층 로비
- 신청 : 선착순 100명
- 문의 : 850-6016

### 청소년·부모 상담 및 심리검사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래관계, 진로, 학업, 가정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연중

**대상자**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및 부모

**내용** 개인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 개인상담(찾아오는 상담, 찾아가는 상담)

- 대상 : 청소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 진행 : 상담신청 → 상담자 배정 → 주 1회 50분
- 비용 : 청소년 무료

#### 전화상담

- 내용 : 학습, 진로, 교육, 학교폭력, 가출문제 등
- 일시 : 연중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1388(연중 24시간)
- 문의 : 721-2300, www.inyouth.or.kr

### 인천시라면 내가 자신 있다~!

인천시의 구석구석 생생한 이야기를 취재할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기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객원기자 모집

- 모집대상 : 인천시와 기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모집기간 : 7월 6일(월)~20일(월)
- 모집분야 : 취재기자(사진 및 동영상 촬영 포함)
- 지원자격
  - 인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천지역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한 분(기사작성 월 2건 이상)
  - 글쓰기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분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자유기사), 2차 면접
- 활동기간 : 2015년 8월~2016년 7월(1년간)
  - (※활동우수자는 1년 재위촉)
- 활동내용 : 현장(행사)취재 및 인천시와 관련된 콘텐츠 발굴, 소개 등
- 활동혜택
  - 'I-View' 기자단 위촉장 및 명함 발급
  - 채택된 기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활동우수기자 시상(시장상 추천)
  - 인천시 산하기관 견학 및 문화·공연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신청방법 :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및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 메일(media\_ic@naver.com)로 제출
- 문의 :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홍보콘텐츠팀 440-8304

### 인향초·중·고등학생모집

“배울 때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서러움은 평생을 간다.” 인향초중고등학교에서는 사정 때문엔 배움을 놓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과정 초·중·고등과정 각 1년 수료

**모집인원**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수업시간** 월요일~금요일(오후 6시 30분 시작, 9시 종료)

**원서접수** 9월초까지(선착순 마감)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토, 일, 공휴일 휴무)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등본 1통, 반명함 사진 3장

**홈페이지** www.inhyang.net

**문의** 772-4061

##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 인천연안부두, 외갓집 가는 길

어린 시절 아버지는 두 딸을 참 예뻐하셨습니다. 아빠가 쉬는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가고, 사진 속 추억으로 남기곤 하였지요. 영흥도 외갓집에 가던 길, 인천연안부두. 사진 속 청년 같던 아빠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정희경 남동구 소래역로



### 사람 반 물 반, 송도해수욕장

27년 전 여름, 가족과 함께 송도해수욕장으로 물놀이 갔습니다. 사람 반 물 반이었던 해수욕장, 발만 담가본 채 아쉬움을 뒤로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김은숙 남구 석정로



### 24년 전 여름, 을왕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푸른 바다는 그대로인데, 사진 속 소년은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박승태 남동구 구월로



### 푹푹하던 그때, 송도 나들이

전국이 올림픽으로 들썩이던 1988년, 저는 꿈 많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인천시민회관에서 인하대학교를 거쳐 송도유원지까지 두 바퀴로 내달렸습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은 모두 잘 있을까요. 문득 그 시절이 생생합니다.

조성진 송도동 센트럴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 땅속에 ‘인천’ 있다

글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원



인천에 땅굴이 있다. 적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왜 땅속에 굴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다. 대개는 일제 말기 방공호로 파 놓았을 것으로 추측될 뿐 조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언급된 곳만 정리해 봐도 파라다이스호텔 밑, 자유공원, 긴담모퉁이, 화랑농장, 부영공원 등 열 군데가 넘는다. 그중 부영공원에서 확인된 땅굴이 제법 크다. 예전부터 많이 회자되던 곳이지만 내부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 건 최근 끝난 시굴조사를 통해서다. 두 출입구가 발견됐는데, 입구 밑까지 물이 차 있어 사람이 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된 구조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정교하다. 단순히 방공호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조병창이 있던 장소였으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본군의 흔적을 기대해볼 만한 공간이다.

자유공원에 있는 땅굴은 그나마 걸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입구는 평범해 보여도 끝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만큼 깊다. 어느 시기에 이용했는지, 신상을 올려놓은 듯한 작은 제단도 통로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응봉산 속살이 복잡한 토굴로 이리저리 연결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땅굴은 꽤 훌륭한 역사 자료다. 활용도 높은 교육용 자산이기도 하다. 전쟁 기지였던 인천을 그만큼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도 드물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증거물이라고 도외시킬 필요는 없다. 가꾸기에 따라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알뜨르 비행장과 지하 병거, 격납고 등은 모슬포항과 송악산 사이에서 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제주도민들의 처참한 삶이 묻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경으로 손꼽힌다. 더구나 농민들이 일상으로 경작하는 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의 비극을 한층 생생하게 전해준다.

인천의 땅굴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다. 늘 근처에 있었지만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다. 개항기에 세운 번듯한 서구식 건물은 이국적 경관으로 찬사를 받는다. 연륜이 오래된 주택이나 상점, 공장 등은 근현대 유적으로 주목받으며 필수 답사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모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자산이다. 그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축조된 땅굴 또한 그러한 유적들과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

지금껏 인천에 남아 있는 땅굴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체를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칠게 땅을 파놓은 단순한 굴이 아니다. 인천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한 공간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시급하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길은 똑바로 뻗어 나가지 않는다.”

— 박태순 <국토와 민중>

발걸음을 따라 길이 생긴다.

길은 구불구불해야 제맛이다. 휘청대며 뛴 길은 인생을 닮았다.

그런 발걸음이 모여 한 시대를 만든다.

몽(夢)땅 인천골목



## 비와 悲瓦

요즘 기와집 보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여백, 한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와집도 지붕이 낡아

이슬비만 내려도 물이 썩니다.

장마철입니다.

비와(悲瓦).

낡아서 슬픈 기와, 손 좀 봐야겠습니다.

— 중구 율목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